

대학스포츠0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소식지 | 2012. 02. 01.

제2대 장호성 회장 취임

인터뷰

김한중 초대 회장
장호성 제2대 회장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협의회 주요 활동

2011 대학경기리그제 운영 지원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분석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CONTENTS



04 인터뷰

“학업과 운동 병행
대학스포츠
새 지평 열었다”
_김한중 초대 회장

“소통 공간을 넓혀
대학스포츠의 열기에
불을 지피겠다”
_장호성 제2대 회장

대학리그

- 08 대학축구리그 결산
- 10 대학농구리그 결산
- 12 대학배구리그 결산

협의회 주요 활동

- 14 대학경기리그제 운영지원
- 15 대학경기리그 참여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분석
2011학년도 우수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
- 16 대학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 서명 추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자격요건 개정 요청
- 17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 18 대학스포츠 블로그 운영
협의회 소식지 대학스포츠 제1호 발간·배포
- 19 각 언론사 체육부장 및 농구·배구 전담 기자 간담회

협의회 주요 행사

- 20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 22 2011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

학생선수 인터뷰

- 24 2011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① _호남대 축구부 김형록
- 26 2011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② _고려대 농구부 노승준
- 28 2011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③ _경희대 배구부 진성태

협의회 주요 계획

- 30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계획

총장 동정

- 31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학업과 운동 병행 대학스포츠 새 지평 열었다

김 한 중 초대 회장

Q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설립된 지가 일 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간 초대 회장으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평교수 때 연세대학교 농구부장을 하면서 농구대잔치를 두 차례 우승하는 과정에서 대학스포츠에 대한 애정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우승의 화려함 뒤에는 학생선수들의 학업 부진, 졸업 후 진로, 아마추어리즘의 훼손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어느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스포츠계가 풀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선 대학 농구부를 보유하며 대학스포츠 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총장님들과 함께 대학스포츠 협의기구를 설립 하지는 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스포츠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아무래도 대학들은 자율성이 강하다 보니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우리 협의회는 운동부를 보유한 대학의 총장께서 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2012년 1월 말 현재, 51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대학 운동부를 자체적으로 특징 있게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 대학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주요현안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향성과 주요현안들을 연구하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Q 초대 회장 재임 동안 추진하신 일 중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우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하여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의 경기 방식을 기존 토너먼트 대회에서 리그 대회 방식으로 바꾸어 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종전 토너먼트 대회 때는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 잦은 부상과 더딘 회복, 팀의 경기력 저하라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리그 대회 전환 후 그 현상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특히 홈앤드어웨이 경기로 말



미암아 학생선수와 재학생 그리고 학내 구성원 간 유대감이 향상되어 새로운 대학스포츠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일입니다.

Q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마련 등은 대학스포츠의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다 전문 운동선수로서 직장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학원엘리트스포츠는 피라미드 구조로서 상위 5% 이내만이 엘리트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 학생선수는 졸업 후 운동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학 시절에 공부하지 않은 학생선수는 참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하루아침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우선 대학경기리그 참여 학생선수들의 성적표를 제출받아 학업 능력을 전수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예견한 대로 낮은 수준이었고, 교양과목이 전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학생선수의 학습 환경을 대학별로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리그 참여 학생선수 중 일부 학생은 각고의 노력으로 학업과 운동, 이 두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내어 다른 학생선수의 모범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협의회에서는 이런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들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력이 우수한 학생선수에게는 여러 유형의 포상이 있었으나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학생선수에게 표창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포상 계획을 확대하여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잘 챙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학스포츠를 운영하는 데 있어 많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대학스포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크게 정상적 운영비와 경기시설 관리와 개선을 위한 자본적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두를 학교 교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대학스포츠 통합 마케팅을 통하여 이런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협의회와 한국대학농구연맹이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인 (주)IB스포츠와 '대학농구리그'에 대한 마케팅 대행 권리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선지급개런티를 받아 효율적인 리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대학 학생선수, 대학 구성원 등 모두가 대학스포츠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어 대학스포츠만이 갖는 가치를 축적해나가면서 좁게는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넓게는 국민에게 다가가서 새로운 대학스포츠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동의를 얻어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수입원 모델 개발'을 위하여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과 함께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실천 방안을 하나하나 개발해야 합니다.

소통 공간을 넓혀 대학스포츠의 열기에 불을 지피겠다

장 호 성 제2대 회장

Q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총장님께서서는 평소 대학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초대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스포츠 협의기구의 기초를 닦아 놓으신 김한중 연세대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 초기에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훌륭한 조직을 육성해 놓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학원엘리트스포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대학스포츠와 관련하여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하계 및 동계 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에 한국대표선수단을 선발하여 참가하는 일입니다. 또한, 국내 대학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과 각국 대학스포츠기관과의 스포츠교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학생선수들이 국제 대학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일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역할은 그 주체가 학생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계 및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 대학생의 종합 스포츠 축제로서의 의미가 강하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임무는 우리나라 학원엘리트스포츠의 최정점으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양쪽의 역할을 보다 생산적으로 적용하여 한국형 대학스포츠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간 우리나라 학원엘리트스포츠, 특히 대학스포츠는 한국 스포츠의 젖줄로서 그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대학스포츠는 국내 프로스포츠의 성행과 외국 스포츠 콘텐츠의 유입으로 현재 그 역할이 왜소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력과 선수 스타성 면에서 프로스포츠에 비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이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고 여기에 더하여 열정과 패기의 경기를 펼친다면 대학스포츠의 진기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 자원이 두텁지 않은 현실에서 대학스포츠의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학경기리그를 통해 대학 학생선수의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종전의 토너먼트 방식의 경기는 실력이 우수한 선수 위주로 단기간 내에



오로지 승리만을 바라보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폐단이 많았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학경기리그제는 어느 일정한 기간 여러 팀과 여러 학생선수가 서로서로 우열을 가리게 됨에 따라 학생선수의 기량이 고르게 올라갔고, 학생선수 각자의 안전 문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는 초기 단계로서 그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보나 중장기적 비전을 견고히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학운동부 운영 종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그와 아울러 대학경기리그제의 성과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캠퍼스 내 홈경기가 열릴 때는 재학생은 물론 학내 구성원이 많이 관람하고 응원하여 대학스포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문화가 대학스포츠 소비자 생활 속 깊이 형성되어 그들만의 가치를 형성하는 브랜드 커뮤니티 집단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경기리그를 인터넷으로 방송하여 대학스포츠의 소통 공간을 넓혀 대학스포츠의 참모습을 널리 알리고 건설적인 조언을 듣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문제는 대학스포츠의 선결과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을 확대하고 회원 대학별 맞춤형 학사관리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Q 지금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만이 리그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외의 종목, 예를 들면 야구, 아이스하키 등도 리그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의 3개 종목 리그제는 우선적으로 리그 참여 대학교 수, 경기장, 관심도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대학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리그제 시행 종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만, 리그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스포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원엘리트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서 리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스포츠만이 갖는 공익성을 잘 설명하고 알려져 대학스포츠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그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여 대학생은 물론 일반 스포츠팬도 대학스포츠의 열기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웹캐스팅을 잘 기획하고 연출하겠습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스포츠의 통합 마케팅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Q 협의회 회원대학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는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이 협의회가 발족한 지가 일천하지만 첫 단계로 임원 대학인 18개 대학 총장 간에 대학스포츠 활성화와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나가며, 항상 문호를 개방하여 좋은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대학의 모든 총장님과 건설적인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현장의 핵심 책임자인 감독, 코치, 운동부 행정실무자들에게 대학스포츠의 발전과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정례적인 워크숍을 매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익대, 대학 최강자 우뚝

2011 대학축구리그 하반기 결산



2011년 4월 1일, '2010 U리그' 챔피언이었던 연세대와 영동대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한 '2011 U리그'가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대학 캠퍼스를 더욱 뜨겁게 달구며 열전을 펼친 끝에 9월 30일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6개월여간의 정규리그 레이스를 마쳤다.

'2011 U리그' 정규리그는 전국 69개 대학팀이 참가하여 7개 권역으로 리그를 진행하였고, 권역 별 4위 팀까지 총 28개 팀과 5위, 6위 팀끼리 플레이오프를 치러 결정된 총 4개 팀이 'U리그 대학 선수권대회 챔피언십'에 참가하였다.

2011년, 3년째를 맞는 U리그는 승부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한 해였다. 권역마다 매 경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지며 각 팀은 어느 한 경기 승부를 장담할 수 없는 고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정규리그가 끝나는 9월 30일, 권역별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챔피언십과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결정될 정도였다.

수도권 서부권역, 수도권 영동권역, 수도권 중앙권역으로 나뉜 수도권 3개 권역의 경쟁은 유독 치열했다.

관동대, 국제사이버대, 동국대, 성균관대, 수원대, 용인대, 인천대, 청주대, 한양대, 홍익대가 참가한 수도권 서부권역은 리그 초반 수원대가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며 관동대, 동국대와 함께 3파전을 보이는 듯했으나 6월부터 성균관대, 용인대, 한양대, 홍익대의 거센 추격으로 리그 막판

에는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총 18라운드로 치러지는 리그에서 17라운드까지도 챔피언십 진출 팀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 경기의 결과에 따라 성균관대, 용인대, 동국대, 한양대가 챔피언십에 직행하게 되었다.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명지대, 상지대, 서울대, 충북대, 한라대가 참가한 수도권 영동권역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된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광운대가 몰려 있어 '죽음의 조'로 불렸다. 치열한 순위 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초반 예상과 달리 고려대는 단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으며 여유 있게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광운대와 경희대가 2,3위를 차지했다. 챔피언십 직행 티켓 한 장을 놓고 다툰 건국대와 명지대는 최후 맞대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결국 1-0으로 승리한 건국대가 챔피언십 직행 막차를 탈 수 있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세종대, 송호대, 아주대, 연세대, 영동대, 중앙대, 탐라대, 한중대가 참가한 수도권 중앙권역은 리그 초반부터 연세대가 앞서 나가며 줄곧 1위 자리를 고수했다. 그러나 리그 후반 중앙대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결국 1위 자리를 빼앗은 대이변을 연출했다. 결국 중앙대, 연세대, 아주대, 탐라대가 나란히 1,2,3,4위를 차지하였다.

그 외 남부권역, 영남권역, 중부권역, 호남권역은 비교적 큰 이변 없이 리그가 진행되었다.

남부권역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던 호남대가 리그 막판 조선대에게 밀격을 당하며 명신대가 승점 1점 차로 1위를 차지한 것이 이변이라면 작은 이변이었다. 영남권역에서는 울산대가 리그 초반부터 독주체제를 이어갔으며, 중부권역에서는 한남대가 전 권역 통틀어 유일하게 무패(15승 3무)를 기록하며 일찌감치 1위를 확정 지었다. 호남권역에서는 우석대와 전주대가 리그 막판까지 엇치락뒤치락 한 끝에 골득실에서 앞선 전주대가 1위를 차지하였다.



‘U리그 대학선수권대회 챔피언십’은 ‘2011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이라는 공식명칭으로 개최되었으며, 10월 22일 한남대와 초당대의 대결로 막을 올려 11월 11일까지 이어졌다.

32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펼쳐진 챔피언십은 매 경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이 이어졌다.

챔피언십 첫 상대 명지대를 맞아 승부차기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진출한 데 이어 예원예술대, 아주대, 한남대를 만나 모두 2-1 역전승을 거둔 끝에 결승에 진출한 울산대와 수도권 서부권역에서 5위로 밀려나는 바람에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챔피언십에 진출하여 불과 11일 사이 한국국제대, 한중대, 중앙대, 대구대, 광주대, 동국대를 차례로 꺾은 홍익대가 결승에 진출하였다.

11월 11일 2시, 울산대 운동장에서 펼쳐진 ‘2011 카페베네 U리그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는 황재현, 이건희, 심동운이 연속골을 넣은 홍익대가 울산대를 3-0으로 꺾으며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2011 U리그’ 수도권 서부권역 최다득점자(12골)인 홍익대 주장 심동운은 썩기골을 넣는 활약으로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U리그 대학선수권대회 챔피언십’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37개 팀이 겨루는 ‘U리그 대학선수권대회 프렌드십’이 신설되었다. ‘2011 카페베네 U리그 프렌드십’으로 명명되었으며, 챔피언십과 마찬가지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졌다. 챔피언십에 참가한 팀들은 매 경기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펼치면서 학생선수만이 지닌 패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11월 6일 2시,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청주대와 인천대가 맞붙었다. 청주대는 김정재와 조성준의 연속골에 힘입어 인천대를 2-1로 꺾고 프렌드십 원년 우승팀이 되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박지혜





‘26전 전승 통합우승’ 경희대 천하

2011 대학농구리그 2차리그 결산

‘난공불락’ 경희대 - ‘궁절시진 디펜딩 챔피언’ 중앙대 - ‘돌풍의 핵’ 한양대

2011 대학농구리그 2차리그와 플레이오프를 돌아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바로 경희대의 전승 우승 달성, 디펜딩 챔피언 중앙대의 침몰, 그리고 한양대의 돌풍이 그것이다. 2차리그 개막을 앞두고 경희대의 무패 행진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크지 않은 게임 차로 순위가 갈렸던 중상위권 팀들의 6강 플레이오프를 향한 본격적인 경쟁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경희대는 난공불락이었다. 1차리그부터 이어진 경희대의 기세는 2차리그에서도 여전했다. 2011 대학농구리그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26연승을 기록하면서 전승 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이는 2010년 중앙대의 25연승을 뒤엎는 기록이었다.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모두 준우승을 차지한 연세대는 1차리그에 이어 2차리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경희대를 단 한 차례도 꺾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시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감독이 바뀌는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희대를 바짝 쫓으며 꾸준하게 성적을 내면서 농구명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중앙대의 침몰은 안타깝다. 마지막까지 3위 자리를 지키며 강호의 면모를 과시하기는 했지만 2차리그를 앞두고, 앞선 경희대와 연세대를 위협하는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중앙대는 그다지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상선수 속출로 학생선수 자원 자체가 부족해서 결국은 플레이오프 6강에서 한양대에 패하며 2년 연속 우승의 꿈은 비교적 일찍 접어야만 했다.

정규리그 내내 6위권에 머물렀던 한양대는 2011 대학농구리그 막바지에 돌풍을 몰고 온 팀이다. 이들은 2차리그 후반 경희대, 명지대, 중앙대에 차례로 3연패를 당하며 6강 진출이 위태로울 뻔했으나 막판 뒷심을 발휘해 정규리그 6위의 성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다. 이후 플레이오프 6강에서 맞붙은 디펜딩 챔피언 중앙대를 누르고 4강에 진출했고, 강한 골밑을 자랑하는 연세대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치며 플레이오프 공동 3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투지 넘치는 경기로 많은 박수를 받으며 한양대와 함께 플레이오프 공동 3위를 차지한 고려대, 꾸준히 정규리그를 잘 치러 무난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2년 연속 고배를 마신 건국대, 리그 막판까지 한양대를 추격하며 분전한 동국대를 비롯해 6강 플레이오프 막차 티켓 경쟁에서 밀려난 명지대, 단국대, 성균관대 등 경희대 천하의 2011 대학농구리그는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막을 내렸다.

리그가 종료된 지금, 각 팀은 신입생 영입을 모두 마친 상태다. 팀의 주축을 이루었던 4학년 선수들의 졸업과 새로운 전력의 가세, 그리고 동계훈련을 통한 성장이 2012 대학리그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본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민지원





경기대 2011년 제패... 신진식 감독의 흥익대 결승행 파란

2011 대학배구리그 추계대회 결산



대학축구와 대학농구에 이어 2011년, 드디어 대학배구리그가 출범했다. 춘계대회의 경우, 4강에 진출한 팀 모두 리그에서 5승 2패의 성적을 거뒀고, 추계대회에서도 6승 1패를 기록한 1위 흥익대를 제외한 세 팀이 역시 5승 2패를 기록했다. 각 팀의 전력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었다. 이처럼 어느 팀이 강자가 될 것인지 쉽게 짐작할 수 없었기에 대회가 진행될수록 팬들의 관심은 뜨거워졌다.

이번 추계대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팀은 역시 신진식 감독이 이끄는 흥익대학교였다. 지난 춘계대회에서 결승에 올라 준우승을 해내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흥익대는 4학년 최민호, 심홍석 등의 활약에 힘입어 추계대회 리그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목이 쏠린 부분은 초보 감독의 지도력이었다. 선수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팬들은 신 감독의 선수 시절 별명인 '갈색폭격기'에서 따와 '갈색매직'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다. 흥익대는 더 이상 돌풍을 일으키는 팀에서 그치는 게 아닌 굳건한 강팀으로 자리매김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경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였을까? 홍익대는 춘계대회에 이어 추계대회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홍익대에 매년 준우승을 안겨 준 팀은 전통의 강호 경기대학교였다. 경기대는 춘계대회와 추계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해내며 2011년 대학배구계를 제패했다. 추계대회는 리그 3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 성균관대, 한양대, 홍익대를 차례로 이기고 거둔 우승이기에 더욱 값졌다. 4학년 최홍석이 국가대표 차출로 추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주전을 박진우, 이민규, 송명근 등 저학년 위주로 꾸린 것이 도리어 더 장점으로 작용했다. 리그 내내 각 팀을 이끌던 4학년 선수들이 10월, 프로팀에 입단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뛰지 못했지만 경기대에서는 단 한 명도 전력에서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변화는 지도자 쪽에서 일어났다. 오랜 시간 팀을 지도했던 이경석 감독이 프로

구단인 LG손해보험 그레이터스로 자리를 옮기고 김구철 코치가 감독대행으로 경기대를 이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기대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춘계대회에서 4승 3패로 아쉽게 4강권에 들지 못했던 한양대학교는 이번 대회 5승 2패를 거두며 리그 2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다. 지금은 프로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리베로 부용찬이 눈에 띄었다. 3학년 안요한이 부상으로 리그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4학년 류윤식과 2학년 김재훈이 그 공백을 잘 메웠다.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경기대를 만나 3대 1로 패하면서 대회를 마무리지어야 했다.

한양대와 함께 대학배구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는 경기대 최홍석과 마찬가지로 팀의 에이스 전광인이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전력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성균관대에는 서재덕이 있었다. 현재 V리그에서도 강력한 신인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서재덕은 팀을 4강권으로 이끌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전광인이 합류해 서재덕의 빈자리를 채워보려 했지만 1차전에서 경기대에 패했다. 결국 성균관대는 10월 초에 있던 전국체전 대학부 우승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지난 대회 5승 2패로 좋은 성적을 냈던 인하대학교는 이번 대회에서 3승 4패로 5위에 그쳤다. 부상 후 복귀한 3학년 이강원에 기대를 걸었던 경희대학교도 2승 5패의 성적을 거두어 아쉬움을 남겼다. 명지대도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2승 5패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리그 후반 최강팀 경기대를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명지대는 리그 마지막 경기로 강팀 성균관대와의 일전을 앞둔 경기대의 발목을 잡아 리그 순위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유일한 비수도권팀 조선대학교는 춘계대회에 이어 추계대회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다.

글. 대학스포츠프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1기 서혜연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제의 조기 정착 운영 지원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제의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제 이전에는 주로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를 지방에서 장기간 치름에 따라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이 잦아 학습권 침해 현상이 심했다. 또한, 토너먼트 형식의 대회는 경기 승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구조여서 기량이 뛰어난 선수 위주로 출전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개인 및 팀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체력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에, 대학스포츠 정상화의 기본 축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정부의 지원 아래 협의회가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제를 주축함에 따라 캠퍼스 내 홈경기를 치르게 되어,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팀 내 학생선수가 고르게 출전할 수 있게 되어 학생선수 개개인의 경기력 향상과 체력관리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학생선수들과 일반학생들 간의 유대감도 놀라보게 좋아지는 등 새로운 대학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올해 홍익대학교 체육관 보수를 지원하는 등 각 대학 시설 지원에도 힘써 2011년 11월 대학배구연맹에서 리그 참여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배구리그 설문조사에서도 시설 만족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춘계리그보다 추계리그 리그제 만족도가 상승하였고, 수업 참여도가 더 늘었다고 답변하는 등 리그제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학습권 보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리그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0년에 49억 8천만 원, 2011년에 20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학경기리그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2011년
공익사업적립금	대학축구리그	2,880,000 천원	1,300,000 천원
	대학농구리그	1,500,000 천원	320,000 천원
	대학배구리그	600,000 천원	420,000 천원
		4,980,000 천원	2,040,000 천원

대학경기리그 참여 학생선수 성적표 진단 · 분석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 참여 학생선수의 성적표 진단 ·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선수는 2011년 5월 기준, 2,700여 명이다. 지금까지 이들의 학업성적을 파악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경우는 없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리그 참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기초 자료를 도출하고자 56개 대학 1,411명(축구 1,186명, 농구 125명, 배구 100명)의 성적표를 제출받아 이를 국민대학교 스포츠마케팅 연구실 신승호 교수 팀에 진단 · 분석 의뢰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선수 평점 평균은 2.67 수준으로 낮았으며, 특히 교양이 전공 성적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양과목이 체육 전공과목에 비해 학습 적응력 면에서 그 수준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분석 대상 56개 대학 중 24개 대학은 F학점을 받은 학생선수가 없었으며, 전체 평점 평균이 2.10 수준임에도 F학점이 미 발생한 일

부 대학이나 체육특기생을 위한 별도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F학점이 미 발생한 대학의 경우,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체 대상의 64%(904명)를 차지하는 중 · 소도시 소재 대학 학생선수의 평점 평균은 서울 · 광역시 소재 대학 학생선수의 평점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경우는 비교적 학점 관리가 유리한 환경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분석 결과를 교과부와 문체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와 연동하여 올해 초등 6학년이 고등 3학년이 되는 2017년에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수준이 60%로 격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협의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명실공히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하여 선진형 대학스포츠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대학스포츠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51개 회원 대학 리그 참여 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 중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우수한 학업성적과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추고 전인적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 다른 학생선수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자를 선발 · 시상하였다. 그간 경기성적이 우수한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은 많았으나, 학업성적과 경기성적 모두가 우수한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은 처음이다.

2011년 11월 중 학생선수의 2011년 1학기 말까지의 전(全)학년 성

적과 총장 추천서를 제출받아 협의회의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학축구 · 농구 · 배구 종목별 최우수 1인, 우수 2인씩 총 9인의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를 선발하였다.

선발 결과,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최우수 학생선수로 호남대 김형록(축구), 고려대 노승준(농구), 경희대 진성태(배구)가 선발되었고, 우수 학생선수로 동국대 최명희와 충북대 손승현(이하 축구), 연세대 김승원과 경희대 박래훈(이하 농구), 경기대 최홍석과 명지대 김민제(이하 배구)가 선발되었다. 수상의 영광을 누린 이들은 201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여 협의회 회장 명의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최우수 학생선수는 200만 원, 우수 학생선수는 100만 원의 상금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우리 협의회는 앞으로도 우수한 학업성적과 수준 높은 경기력을 갖춘 숨은 모범 학생선수의 발굴과 함께 매년 정규 시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종목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구 분	축 구	농 구	배 구
최우수	김형록(호남대 4학년)	노승준(고려대 4학년)	진성태(경희대 1학년)
우 수	최명희(동국대 3학년)	김승원(연세대 4학년)	최홍석(경기대 4학년)
	손승현(충북대 3학년)	박래훈(경희대 4학년)	김민제(명지대 3학년)

대학 체육특기자(농구 · 배구)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 서명 추진

그동안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 스카우트라는 불미스런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금전 스카우트는 그 특성상 과열과 부정 한 방법이 은연 중 스며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 협의회는 2011년 2월 집행위원회에서 과열과 부정 한 방법이 동원되는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 스카우트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결의하였다. 이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7월, 협의회 집행 위원회에서 대학 체육특기자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안) 및 대학 체육특기자 스카우트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보고서(안)을 마련하였다. 대학운동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각 대학의 체육위원장과 감독 및 코치가 서약서와 서면보고서를 작성 하고 서명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아, 8월, 2회에 걸쳐 농구 · 배구 보유 대학 체 육위원장 및 감독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러 한 과정을 거쳐 10월, 협의회 집행위원회에서 서약서와 서면보고서 최종안을 의결하였으며, 이 내용에 대해 대학 체육위원장, 감독 및 코치가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1년 11월, 마침내 서약서와 서면보고서 최종안이 협의회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 스포츠를 견인하는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대학 체육특기자의 금전을 통한 스카우트 근절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서약서에는 ▲대학운동부(농구 · 배구) 체육특기자를 선발함에 있어 금전을 통한 스카우트를 하지 않고 ▲스카우트 대상 체육특기 자에게 직접적 또는 소속 대학 동문 · 교우 관련 단체, 체육위원회 및 이와 연관된 모든 조직 · 단체를 통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체육특기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 해 소속 대학교 총장에게 선수 추천 관련 내용을 진실하게 서면보고 하여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약서 및 서면보고서는 2013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해당되며, 서약 주체는 해당 대학의 체육위원장, 감독 및 코치로 되어 있 다.

대학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자격 요건 개정 요청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과학기술부 · 대한축구협회는 2009년부터 초 · 중 · 고 축구 리그제를 주말과 방과 후에 운영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고자 매진하고 있다. 그간 대학에서 도 축구 리그제를 시행한 결과, 종전 전국대회 방식과 달리 개인과 팀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등이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리 나라 축구 발전과 대학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초 · 중 · 고 축구 리그제와 대학 축구 리그제가 동반 성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에 고교 축구리그에 출전한 기록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축구협회 등에서 요청한 '2013학년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

건 개정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집행위원회의 관련 안건 협의 및 대 한축구협회와의 연석회의 등 세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최종 의결하였다.

대상 기관은 협의회 회원 대학 중, 대학축구리그에 참여하는 46 개 대학이며, 11월에 이들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2013년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시 요강'에 반영하여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2013학년도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입학 지원 자격 요건 개정 요청 내용'은 ▲리그대회에 출전한 개인 기록을 축구 체육특기자 선발 지원 자격 요건에 적용 ▲리그대회 팀 성적 적용 배제 ▲고교 2학년 재학 중 리그대회 30% 이상 출전 기록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입학 지원 자격 요건 신설로 우수 학생선수가 고교 3학년 때 부상으로 입



학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한 경우 고려 ▲고교 1학년 재학 중 리그대회 출전 기록으로만 대학 진학이 가능한 입학 지원 자격 요건은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 ▲리그대회 개인 출전 기록과 전국대회 팀 성적 동시 적용 금지 ▲클럽 축구팀 출신의 고교 졸업 예정자가 대학 축구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원 축구부 출신과 동등한 기준으로 선발 등이다.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하여 재정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중·장기적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이번 연구 용역은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송재기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강대 연구팀은 대학스포츠 문헌 조사, 대학스포츠 리그제 현장 방문, 실무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한국·미국·일본의 대학스포츠 산업 현황 분석 ▲한국 KUSF, 미국 NCAA, 일본 JAUPES 비즈니스 분석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브랜드 포지셔닝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통합마케팅 전략 제안 및 시사점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9월 중간보고를 거쳐 12월 최종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다.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통한 대학스포츠 문화 환경 조성 노력
-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학스포츠 문화 환경 조성 노력
-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대학스포츠 문화 환경 조성 노력
- 다양한 수입원 발굴을 통한 대학스포츠 운영 효율성 증가
- 관계 네트워킹을 통한 대학스포츠 운영 효율성 증가
- 차별화 및 세분화 마케팅 강화를 통한 대학스포츠 마케팅 역량 향상
- 마케팅 모니터링 구축을 통한 대학스포츠 마케팅 역량 향상
- 대학스포츠 재원 확보를 통한 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 소비자 관심 증대를 통한 스포츠의 균형적 발전

협의회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스포츠 활성화·정상화·선진화를 위하여 대학스포츠의 공익성을 강조한 지속적인 브랜드 포지셔닝과 통합마케팅의 강화 및 보완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각 언론사 체육부장 및 농구·배구 전담 기자 간담회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출범 일 년에 즈음하여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 운영과 협의회 현안을 설명하고자, 주요 언론사 체육부장 및 농구·배구 취재 전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언론사 체육부장, 농구 취재 전담 기자, 배구 취재 전담 기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특히 7월 말 개최한 언론사 체육부장 간담회 때는 협의회 김한중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협의회 역할 및 대학스포츠의 중요성과 보도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각 언론사는 대학스포츠 보도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연합뉴스는 협의회 출입 전담 기자를 지정하여 대학스포츠를 널리 보도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언론사의 대학스포츠 보도 협조에 힘쓸 예정이다.

구분	체육부장	농구 전담 기자	배구 전담 기자
일시	2011. 7. 27.(수)	2011. 8. 16.(화)	2011. 8. 18.(목)
장소	달개비	달개비	달개비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김한중 회장, 조광민 집행위원장 등 8인 • 언론사 박세진 연합뉴스 부장 등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조광민 집행위원장, 모창배 위원 등 9인 • 언론사 최태용 연합뉴스 기자 등 1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조광민 집행위원장, 조영호 위원 등 9인 • 언론사 고진현 스포츠서울 기자 등 10인
배포 자료	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대학스포츠, SPORTS KU, SIS-BOOM-BAH	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대학스포츠, SPORTS KU, SIS-BOOM-BAH	협의회 주요 업무 보고, 대학스포츠, SPORTS KU, SIS-BOOM-BAH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총회

제 2대 회장에 단국대 장호성 총장 선출

11월 초 선정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에 대한 시상도 열려

2011년 11월 25일 오후, 연세대 총장 공관 영빈관에서 '2011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정기 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협의회 회원 대학 중 27개 대학 총장, 그리고 협의회 집행위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1기 서혜연

대학농구리그 타이틀스폰서 체결 큰 성과

가장 먼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축사가 있었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협의회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학생선수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배우는 데에도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선수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선수 생활 이후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투자 시간과 실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실을 제시하며, 주말 리그제가 학원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제는 스포츠가 그 자체를 넘어 국가 간 총력전의 장이 되었지만, 한국의 스포츠 외교 인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하며 지속적 교육을 통한 '선수 출신 스포츠 외교인' 배출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어 김한중 KUSF 회장(연세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는 '진정한 스포츠 리더의 육성'에 두고 있다."며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리그제가 그 목표 달성의 핵심임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리그제의 운영에 대해 관련 부처, 특히 문체부의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 김 회장은 각 학교에서 치러지는 홈앤드어웨이 리그를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즐기는 문화이자,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포부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원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중심이 대학스포츠이기에 그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의 주요 안건은 김한중 회장의 연세대 총장 임기가 2012년 1월 31일부로 끝남에 따라 2월 1일부터 그 자리를 이어받을 제2대 협의회 회장 선출이었다. 이에 정기총회에 참석한 27개 회원대학 총장은 김 회장 후임에 만장일치로 단국대 장호성 총장을 선출했다.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부위원장이자 2011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단 단장이기도 했던 장 총장은 내년 2월 1일부터 2년간 KUSF 회장직을 맡는다.

협회의 지난 1년간의 주요 실적 보고와 내년 주요 계획안 발표, 협의회에서 선정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주요 실적 중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대학농구리그가 IB스포츠와 손을 잡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KB국민은행과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었다. KUSF는 이외에도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다. 내년에는 리그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진 모델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 인터넷 방송을 실시해 더 많은 팬들이 대학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동과 공부의 병행 가능성 증명

총회 막바지에 열린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시상식에서는 축구, 농구, 배구 리그 참여 학생선수 중에서 선발된 9명(중복당 최우수 1명, 우수 2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모두 각 소속 학교 학생선수의 평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받아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하는 학생선수'가 가능한 것임을 입증했다. 특히 호남대 김형록은 4.21의 학점을 받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시상식에는 바로 다음 날 대학농구리그 4강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전하는 노승준(고려대), 김승원(연세대), 박래훈(경희대)과 역시 중요한 경기를 앞둔 드림식스의 최홍석(경기대)이 모두 참석해 행사의 규모를 증명했다.

기념 촬영을 끝으로 정기총회는 막을 내렸다. 이날 행사는 한국 대학스포츠의 현주소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함께 진단한다는 의미를 지니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11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 실시

51개 회원대학 체육위원장, 경기지도자, 행정실무자 등 참석
협의회와 대학운동부 운영책임자 간의 소통의 자리



2011년 12월 7일, 한국대학스포츠총장 협의회는 2011 대학경기지도자 워크숍을 실시했다. 협의회 51개 회원대학 체육위원장, 경기지도자, 행정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날 워크숍은, 대학운동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 개의 주제 발표를 듣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협의회와 현장지도자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시도되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1기 민지원

가장 먼저 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연세대학교 조광민 교수의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역할과 그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대학스포츠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대학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여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를 이루고자 출범한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이하 KUSF)는 대학축구·농구·배구 리그제의 정상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대학 체육특기자(농구·배구)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서 서명 추진, 대학농구리그 마케팅 사업 대행 계약, 한국 대학스포츠 산업의 재정 수입원 모델 개발 연구, 언론사 체육부장 및 농구·배구 전담 기자 간담회 등 그간 쌓은 실적을 공개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일구어낸 위와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2012 대학경기리그제 운영 지원 및 선진형 모델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대학경기리그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정립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올바른 모델의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할 예정인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스포츠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선진형 대학스포츠 모델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과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및 전략적 홍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광민 교수의 발표에 이어 오찬의 시간을 가진 뒤, 고려대학교 이윤영 박사가 NCAA(미국대학스포츠협회,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이하 NCAA)의 사례를 통해 본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 코칭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NCAA 사례는 비록 국내 대학스포츠 실정



과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대학스포츠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기에, 그곳의 학생선수 관리 시스템과 지도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를 한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과 대학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윤영 박사에 이어 국민대학교 신승호 교수의 대학경기리그(축구·농구·배구) 참여 학생선수 학업성적 진단 분석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학생선수의 학업성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신승호 교수는 각 학교 학사관리 및 운영제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운동부를 운영하는 모든 대학이 같은 인식을 기초로 한 올바른 기준과 규칙을 정립해 이를 공정히 실천할 것, 그리고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그 관리감독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세 개의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고 참석자와 발표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각 대학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학교 운동부 운영 책임자들 대부분은 협의회가 지향하는 대학스포츠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동의의 의견을 표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올바른 학생선수 양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역시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상적인 '지향점'과 국내 대학 운동부의 '현실'에는 아직까지 큰 차이가 있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제도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지금 한국 대학스포츠는 과도기를 걷고 있다. 선진형 대학스포츠 체계 구축을 위한 기구가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깊이 뿌리박힌 학원스포츠의 폐단을 단번에 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 지도자들과 협의회 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하고 독자적인 '대한민국 맞춤형' 대학스포츠 시스템이 보다 빨리 완성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평점 4.0’ 공부 장학생 되다



최우수상_ 호남대 축구부 김형록

2011학년도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9인 중에서도 평균 평점 4.0이 넘는 우수한 성적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축구 부문 우수 학업성취 최우수 학생선수 김형록(호남대 축구학과 4학년)을 만났다.

김형록은 U리그가 끝난 이후, 졸업을 앞두고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로 선발된 후 가장 기뻐한 사람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한 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저죠!”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답게 시종일관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학생선수로서 장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입학 당시 ‘축구 특기자 장학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운동으로는 장학생이 되지 못했지만 공부로는 장학생이 되자고 다짐했던, 일종의 오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첫 학기 성적은 모두 A+였으며, 이후 매 학기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또 2011년에는 교외 장학금까지 욕심을 내 기관·단체를 직접 알아본 결과 1·2학기 내내 한국장학재단의 우수드림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공부만 하는 일반학생들도 받기 어려운 장학금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받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반복되는 훈련과 수업 일정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업에 빠지지 않고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참여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체육특기생들이 체육학 혹은 체육교육학과 전공인데 반해, 김형록의 특이한 점은 소속 학과가 국내 최초로 개설된 축구학과라는 점이다. 호남대는 축구부 전원이 축구학과에 소속돼 있고, 수업 내용은 곧 운동과 접목된다. 운동하느라 중·고교 시절에 학업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교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학과이기에 교육자들의 열정이 남다르다고 한다.

우수상_ 동국대 최명희

선한 인상, 차분한 말투, 깔끔한 옷차림. 모범생의 이미지를 풍기는 학생선수 최명희. 그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최명희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던 덕분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매일 2시간에서 4시간가량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다. 유학 중인 친누나도 학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동국대에서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수업 내용이 외에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거나 학생선수가 경기 등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고 있는 보충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소수 정예 눈높이 교육을 통

해 흥미와 성취감을 유발하여 모두 열의를 갖고 성실히 임한다며 모교 시스템에 큰 자부심을 내비쳤다.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오후에는 훈련, 경기, 수업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내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스포츠사회학과 교양영어예요. 특히 영어는 잘하고 싶은 욕심에 따로 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장차 체육교사가 되고 싶고, 지금은 20대 초반의 열정과 패기를 축구선수로서 쏟고자 하는 마음이 앞선다는 최명희. 4학년이 되는 2012년에는 학생으로서 교직 이수를 충실히 마치고 선수로서 보다 좋은 실력으로 팀 성적에 기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김형록은 특별히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언제라도 찾아가면 성실한 지도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장재훈 지도교수와 박지영 조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운동은 성실히, 운동 외 시간도 효율적으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과제나 시험 준비가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며 힘주어 말했다. 학생선수 중에는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조차 익숙지 않아 무턱대고 수업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며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 내용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외국어 공부가 낯설 법도 한데 “영어가 어려운 편이었지만, 축구학과 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정해서 수업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고 답했다.

4년간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동안 공부에 대한 노하우도 생겼다. 학생선수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 요약도 적적 해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말하고, 쓰고, 외우며 공부했고 모르는 부분은 서로 알려주며 학업의 능률을 높일 수 있었다. 훈련으로 몸이 지친 날에도 매일 한, 두 시간씩은 이렇게 책을 펼쳤고,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공부했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그는 현재와 미래의 후배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다. 먼저, 대학교 4년의 시간 동안 운동 시 성실히 임하되 운동 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업 참여만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으니 충실히 참여하라고 조언했다. 교수님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다방면의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또래에서 언지 못하는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졸업을 앞둔 지금, “대학은 가장 넓은 학문의 장이며, 운동으로나 운동



외적으로나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많은 곳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대학 4년을 회상한 김형록. 그는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고루 경험할 수 있었다.”며 대학생활에 대한 큰 만족감을 표했다. 물론, 축구부 소속 선수이며 축구학과 소속 학생으로서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운동에 대한 열정과 배움에 대한 지적욕구를 충족하며 작은 사회를 배우게 된 것이다.

그를 통해 대학이 실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 작은 사회임을 보게 되었다. 김형록과 같은 학생선수들이 늘어나 대학에 진학할 학생선수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대학축구는 그들의 인생 설계에서 더 나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기자단 제1기 박지혜

우수상 _ 충북대 손승현

새벽 6시 기상, 오전 8시까지 오전 운동, 오후 3시까지 수업 후 오후 6시까지 오후 운동, 새벽까지 자습 후 새벽 2시 취침...

자기관리가 철저한 학생선수, 손승현의 일과이다. 수면시간은 평균 4시간. 식사시간 때에만 겨우 숨 돌릴 틈이 있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 힘들지 않아요.(웃음)”라고 답한다.

그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니다. 2학년 때 생리학 과목 수강을 계기로 공부에 재미가 붙어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좋은 성적을 받고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되어 자기관리에 더욱더 힘쓰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생답게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수업시간마다 음성 녹음을 해서 자습할



때 듣는 것이 공부 비결이라고 공개한 그는 공부할 땐 공부할 수 있고 운동할 땐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금요일 경기 때마다 수업에 빠져야 하는 점은 아쉽다며 리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손승현은 공부와 운동 중 어느 하나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항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이런 모습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

각한다.



코트 위에서만 A+ 아냐! 성적도 A+!

최우수상_고려대 농구부 노승준

“성실하고 단단한 선수입니다.” 고려대 농구부 감독과 코치가 생각하는 노승준의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마찬가지. 새로이 고려대 유니폼을 입은 새내기들은 “노승준 학생선수는 어떤 선배예요?”라는 질문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형은 성실 빼면 시체예요. 정말 존경해요.” 이란다. 현대 운동하는 데 있어서만 성실한 게 아닌가 보다.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저 성적 괜찮아요. 운동부 중에서는 최고인데?”라고 말했던 게 얼핏 기억난다.

진짜 1등일 줄은 몰랐다. 비단 학교 안에서만 1등이 아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실시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에서 당당히 농구 부문 최우수상이라는 영예를 거머쥔 것. ‘운동’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노승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운동만 해야 되는 거면 농구 안 해요.”

시작이 늦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기 직전에 본격적으로 농구 코트 위에 섰다. 워낙 키가 크지라 농구나 배구선수로 스카우트 제의가 많았다. “저 길거리 농구하면 진짜 잘하긴 했어요.”라고 겸연쩍게 웃는 그는 “정말! 운동선수 할 생각은 없었어요!”라고 회상한다. 중3 끝 무렵,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너처럼 키 큰 사람은 신입사원으로 잘 안 뽑는데! 키도 덩치도 되니까 농구 해볼래?” 그렇게 시작하게 된 농구.

단, 그가 운동을 시작하는 데에는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었다. “운동만 해야 되는 거면 저 안 해요.” 그의 말에 의하면, 중학교 때 공부로 ‘한 가닥’ 했던 터라 아깝기도



우수상_연세대 김승원

연세대 농구부 주장, 학생선수 김승원. 먼저 우수 학업성취 우수 학생선수로 선발된 소감을 물었다. “공부해서 받은 상이니까 기분이 엄청 좋고요. 사실 상금이 있어서 더 좋아요!”

김승원은 오전 수업 참여에 아주 적극적이다. “오전에 수업 들어가기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4학년 마지막 학기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수업에 열심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졸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들어가 하고요.”

연세대 농구부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비교적 일찍 과격적인 시도를 했던 팀이다. 이들은 2007년 방영된 KBS 시사기획 째,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고충을 담아내고 학원스포츠의 모순을 보여준 바 있다. “그 프로그램 후에 오전에는 새벽 운동만 하고 무조건 수업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오전 내내 운동만 계

속하느라 수업에 많이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너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도, 일반학생들을 따라가기에는 좀 벅차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몸이 지치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운동선수라고 평생 운동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부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김승원은 자신이 ‘대학생’이기에 학생의 본분으로서 수업에 참여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운동선수’이기도 하기에 농구를 그 어떤 것보다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최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매진하는 김승원. 학생으로서도 운동선수로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그가 쓰는 노력만큼 멋진 결실을 보게 되기를 기대한다.



하고, 농치고 싶지 않기도 했다. 또 학업을 그만두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진학이 결정된 학교 측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후에야 공을 잡았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치른 첫 시험에서 중상위권을 차지해서 담임선생님이 운동하는 애가 공부도 잘한다고 예뻐 해주셨는데... 공부를 안 하니깐 결국엔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치더라고요.”

“공부 할 수 있는 기회 줘서 좋아요,”

고려대에서는 2008년부터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전 선포식을 한 이후 학생선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했다. 체육특기생들끼리 수업을 따로 듣고 성적도 그들끼리 매긴다. 노승준 말마따나 ‘눈높이 교육’을 시행한 것. 아무래도 경기 출전이나 훈련 때문에 다른 일반학생들처럼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간표나 커리큘럼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이런 배려에 “학생선수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좋아요.”라고 반색한다. “다른 학우들하고 똑같이 하면 저희가 경쟁이 되겠어요?”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수업 같이 듣는 게 일반 학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건 아쉽긴 해요.”라고 답한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비결에 묻자 “제가 꼼꼼한 편이에요.”라고 운을

멘 뒤 “과제든 뭐든 성의 있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성실. 꼼꼼. 열심. 이것이 지금의 그가 있게 지탱해준 그의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하다,”

처음 농구를 시작할 때, 그가 스스로 그린 초상화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묵은일을 감당해내는 선수’였다고 한다. 1년 넘게 보아온 코트 위의 그는, 혼자 잘하려고 하기보다 팀을 위해 기꺼이 백업 플레이하길 꺼리지 않는, 그래서 더 빛이 나는 선수였다. 또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단련하는 선수였다.

그는 대학 무대에서의 본인의 활약을 점수로 매겨달라는 질문에 “100점 만점에 80점”이라고 대답했다.

“제가 대학 시절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막 미친 듯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천상 운동선수다. 멋진 농구선수다. 열심히 했으니 후회는 없다는 노승준. 앞으로는 미친 듯이 더 열심히 해서, 그동안의 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비상하리라 믿는다.

하나만 잘해도 대단한 거라고들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선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결국엔 다 잘한다고도 한다. 어찌면 노승준이 그런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숏도 깔끔하게 쏘고, 리바운드도 탄력 있게 잡아내고, 어시스트도 파이팅 있게 잘하고, 그리고 공부도 똑소리나게 잘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과 끈기”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에 앞으로 무얼 하든 결국엔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것 같다. 그래서 감히, 더 큰 꿈을 가지라고 제안하고 싶다.

글.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기자단 제1기 **홍원영**

우수상_ 경희대 박래훈

2011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전승 우승을 거머쥔 경희대 농구부 주장, 학생선수 박래훈.

학생선수가 운동이 아닌 공부를 잘했다고 상을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 “저 스스로 만족하는 성적은 아니지만 운동을 잘해서 상을 받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는 거니까... 이런 상이 처음이라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기쁘죠.”

그는 경희대에 입학하면서부터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선수는 운동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학교 측, 체육부 측의 입장이기에 학생선수들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 스스로 학점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저 4년 동안 수업 들으면서 뭐 하나 들을 필요 없다고 느꼈던 과목이 없어요. 전부 유익했어요. 그중에서도 교양수업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운



동만 하며 느끼지 못했던 점을 교양수업을 통해서 배운 점도 많고...”라며 말을 이었다. “공부하고 성적 받는 것도 다시는 못해 볼 대학 시절의 경험인데, 기왕 할 거 좋은 성적 받으면 좋잖아요. 운동해서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소리 듣는 것, 너무 싫어요.” 이것이 박래훈의 생각이었다.

박래훈은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고 버거운 일임은 분명하다 했다. 그렇지만 학생선수로서 지내온 자신의 대학 4년을 돌아보며, 학교 수업 참여를 통한 교육과 공부가 학생선수 개인의 자기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명실공히 그는 운동선수로서, 또 대학생으로서 경희대학교 농구부를 대표하는 주장(主將)임이 틀림없었다.



“운동에 공부까지” 꿈 많은 1학년



최우수상_ 경희대 배구부 진성태

축구·농구·배구부 3,4학년이 즐비한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수상자 명단 가운데 눈에 띄는 수상자가 있다면 역시 배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경희대 배구부 1학년 진성태일 것이다. 수상자 아홉 명 중, 유일한 저학년 학생선수인 그는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2011 세계유스남자선수권대회 참가 차) 아르헨티나에 다녀온 이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상을 받아 노력한 만큼 보답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수상자 중 유일한 저학년...멘토링 큰 도움”

진성태가 우수 학업성취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소식이 팀 동료들은 우스갯소리로 “정말 독하다.”라는 말을 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

그의 일과는 꼭 채워져 있다. 새벽 6시 30분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전 9시 수업에 들어간다. 수업 후 점심시간은 12시, 그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한 뒤, 저녁 수업을 듣는다. 수업을 마치고 과제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짧게 느껴진다고 한다.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여느 일반학생들처럼 과제 때문에 밤을 새우는 것도 흔한 일이다. 매일 운동도 해야 하는 학생선수에게는 결코 녹록지 않은 일정이다. 특히 팀의 주전 선수인 그에게는 컨디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학업으로 인해 운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주변에서는 그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보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을 받게 되는 걸 보며 용원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수상이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이다.

경희대는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선발에서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진성태는 “경희대 학생선수는 운동에 전념할 수도 있고, 공부에 전념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우수상_ 경기대 최홍석

최홍석은 현재 경기대 4학년으로 지난 11월 프로배구 11-12시즌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순위로 드림식스에 입단한 프로 선수이다. 입단하자마자 드림식스의 주전 자리를 꿰차고 매 경기 선발로 출전하고 있는 최홍석. 2005년 V리그 출범 후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슈퍼투키이기도 하다.

경기대 재학 시절부터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제대회에서 이미 여러 번 활약한 바 있는 최홍석은, 경기력만 보면 오로지 운동에만 집중할 것 같은 선수이다. 하지만 그도 엄연한 대학생, 경기대의 학생선수로 제 본분을 다하며 우수 학업성취 우수 학생선수로 당당히 선발되었다.

그는 운동에 대한 상이 아닌 학업에 대한 상이라 더 기분이 좋고, 이번 수상을 통해 운동뿐 아니라 타 분야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학교를 비우는 시간이 많았지만, 학생선수로서 늘 학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수업은 꼭 들어가는

편이었고, 리포트와 과제도 빼놓지 않고 제출했다고.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체육특기생으로 ‘경기대’라는 이름을 달고 시합을 많이 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덕에 ‘진짜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학생들끼리의 MT라던지 동아리 활동 등 대학생만이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못해봐서 조금 아쉬워요. 홈앤드 어웨이 리그제도 올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학생으로서의 생활보다 선수로서의 생활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이런 상이 진짜 있었다면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상을 받게 되어서 이제 후배들도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에도 신경을 쓰면 이런 좋은 상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니 아직 대학생인 후배들도 운동뿐만 아니라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할 수도 있다.”며 “경희대는 학생선수에게 운동만 강요하는 학교가 아니다. 다른 학교는 아무래도 학생선수의 경기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혼치는 않지만 학점은 학교가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학생선수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다고 친구에게 들었다. 우리는 스스로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보람도 더 느낄 수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경희대의 이러한 노력은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후마니타스칼리지’라는 제도 아래 학생선수와 일반학생과의 멘토링, 교양 수업 개편 등으로 모든 학생이 학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 공대생의 멘티인 진성태는 “이는 것도 많이 없고, 도움만 받고 있다. 그런데도 늘 친절하게 도와주는 멘토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이제 갓 생긴 시스템이니 물론 고쳤으면 하는 점도 있다. “아무래도 체대생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해왔기에 일반학생들보다 지식 양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필수 교양수업인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는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인데, 이러한 수업은 수강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서로 맞춰가며 하는 쪽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대학교수가 꿈”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학생선수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공부와 운동의 병행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이유로 힘들게 공부를 하는 것인지 묻자 그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이 있어서”라며 “운동선수로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서 학점 따는 것도 필요하기에 열심히 학점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꿈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진성태는 조심스럽게 “대학교수”라고 답했다. 선수 생활 이후의 목표도 다부지게 갖고 있는 그였다. “고등학교 때는 오전부터 운동을 해서 수

업 참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다. 대학교에 와서 좋은 기회를 만났다.

학생선수 스스로 배움에 대한 욕심이 있고, 더불어 학교의 제도까지 잘 마련되어 있으니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경희대학교 11학번 진성태’의 대학생활 1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물었다.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 독서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했고, 멘토 분들에게 많이 배우기도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 처음에는 과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그런데 지난 학기 들었던 글쓰기 수업의 담당 교수님께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니 천천히 해보라.’라고 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을 만났다고 생각한다.” 허무하게 보내기 마련인 대학생의 첫 1년을 진성태는 그 누구보다도 알차게 채워나가고 있었다.

아직 1학년이니 만큼 내년에도 수상을 노릴 생각이 있을 것 같지만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룬 것을 후배들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 후배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욕심이 하나도 없다면 거짓말이다.”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다. 최근에는 12학번이 될 후배들이 합류했다고 한다. 그는 어떤 선배가 되고 싶을까? “선배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또 내가 접했던 것들을 후배들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운동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도 시야를 넓힐 수 있게 도와주는 멘토 같은 선배가 되고 싶다.”고 답하는 그에게 기자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 한 가지를 해내기조차 어려워하는 일반학생에게도 귀감이 되는 사례를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남은 대학생활 3년 동안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대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건...아무래도 연애가 아닐까요?”라며 웃는 진성태. 역시 영광없는 대학교 1학년생이었다.

글.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제1기 서혜연

우수상 _ 명지대 김민제

매일 7시 15분 기상. 월요일, 아침 식사 후 9시부터 10시까지 운동, 10시부터 1시까지 '게임학개론' 수업, 점심 식사 후 약간의 휴식,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동, 저녁 식사 후 휴식, 저녁 8시부터 야간운동. 참 바쁘하다. 배구 부문 우수 학업성취 우수 학생선수로 뽑힌 명지대 김민제 학생선수의 월요일 일과다. 그나마 수업이 한 과목뿐인 월요일은 이런 스케줄, 수업이 두 과목 이상인 다른 날은 더 힘이 든다. 그렇지만 힘이 든다 해서 수업에 빠지는 일은 결코 없다. 수업을 정말 다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다 들어간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 주로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 출석점수라도 잘 받기 위해서란다. 일반학생들과 똑같이 과제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과제를 안 할 수는 없다며 교수님께 말씀드려 과제의 수준을 조절해서라도 꼭 한다고 덧붙인다.



“공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에 그는 단호히 대답한다. 분명히 꼭 해야 할 것 같다고. “무엇보다도 영어는 꼭 더 공부하고 싶어요. 프로에도 요새는 용병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포지션이 센터이니 용병들과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큰 상을 제가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운 좋게 상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는 의미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에서나 강의실에서나 지금 보여준 것처럼 모습으로 그가 꿈꾸는 목표와 비람 모두 이뤄지길 기대한다.



2012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주요 계획

2012 대학경기리그 운영 지원

우리 협의회는 대학축구·농구·배구 홈앤드어웨이 리그제의 정상적인 조기 정착을 실현하는 한편, 축구·농구·배구 외의 다른 종목도 리그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경기력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 하에 2012 대학경기리그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
리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리그: 630경기 • 플레이오프: 9경기 • 챔피언십(1~32위): 31경기 • 프랜차이즈(33~70위): 35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라운드: 66경기 • 2라운드: 66경기 •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 10~15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계리그: 28경기 • 춘계리그 챔피언 결정전: 3경기 • 추계리그: 28경기 • 추계리그 챔피언 결정전: 3경기

※문화체육관광부 공식사업적립금

선진형 대학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

대학 운동부 운영 종합 실태 조사·분석

대학경기리그제는 시행 초기 단계로 올바른 추진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선진형 대학스포츠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건전한 대학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대학스포츠의 정책과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학 운동부 운영 종합 실태 조사·분석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2012년 우선 과제로 대학 운동부 운영 종합 실태를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고도화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대학스포츠 블로그와 SNS를 운영할 계획이며, 대학경기리그 및 캠퍼스 내의 다양한 대학스포츠 문화 콘텐츠를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웹캐스팅 콘텐츠 제작 및 웹캐스팅 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스포츠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을 대학스포츠 현장으로 이끌어냄과 동시에 소통 공간을 확대하여 대학스포츠의 활성화를 이끌고, 공신력 있는 경기 영상, 기록, 콘텐츠 등을 확보하여 대학스포츠의 정상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우수 학업성취 학생선수 발굴을 통한 대학스포츠 브랜드 강화 사업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회원 대학의 리그 참여 학생선수 중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전

인적 스포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 다른 학생선수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학생선수를 발굴 시상할 계획이다. 이 학생선수를 대학스포츠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대학스포츠 브랜드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대학경기지도자 정례 워크숍



2010년,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대학경기리그의 현장 책임자인 경기지도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중심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축구·농구 리그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대학경기리그제의 단기적 평가와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정하고 대학경기리그제 진단과 관련 종합 토론 등 정례적인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경기리그 운영 전략적 홍보 사업

현재 언론기관에서 대학스포츠를 주제로 하는 보도는 매우 미흡하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 대학스포츠의 고유한 가치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수단을 개발하여 활용해야 한다. 또한 대학스포츠의 주 고객층은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고 스마트폰 이용률이 84%에 달하는 대학생임에도 웹 상으로 제공하는 대학스포츠 관련 콘텐츠가 미약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대학농구·대학배구 기록실 개발 및 공식 기록

대학스포츠 취재 스포츠기자 간담회 및 대학생기자단 워크숍

우리 협의회는 주요 언론사의 대학축구·농구·배구 전담 스포츠기자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기성언론의 대학스포츠 주요 소식 보도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학스포츠 블로그 대학생 기자단을 비롯한 각 학교의 스포츠매거진 기자단, 학보사 스포츠취재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 4회 개최하여 대학스포츠 관련 다양한 주제를 대학생 기자단의 시각에서 심층 취재·보도하여 대학스포츠 문화가 대학가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경북체육회와 지역체육인재육성 MOU



건동대 총장은 2012년 1월 5일 오후 4시 건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경북 체육발전을 위한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골자로 한 건동대학교와 경상북도체육회 간 MOU를 체결하였다.

건동대는 경북체육회가 추천하는 우수 선수의 교육 지원으로 직장 선수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선수들의 지적 수준 향상뿐 아니라 선수 후 진로를 열어가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체육 기술 수출을 위해 해외지도자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경기심판 전문학과 신설을 추진하여 경북 체육인재 육성에 앞장서게 된다.

양 기관은 향후, 경북 체육발전을 위해 현장과 이론의 괴리를 실무로 조할 수 있는 관계자 워크숍 및 학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1 경기대학교 멘토링 Festival 개최



최호준 경기대 총장은 2011년 11월 5일 9시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경기대학교 멘토링 Festival」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만남), 공식행사(소통), 식후행사(화합)로 구성되어 재학생과 졸업 동문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올해 개교 64주년을 맞이하는 경기대학교는 2009년 코엑스에서 경기인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멘토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선후배 멘토 체제를 확고히 구축해 나갔다.

2011 정기 고연전 참관



김병철 고려대 총장은 2011년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2011 정기 고연전」을 참관하였다.

첫째 날은 야구, 농구, 빙구 경기가, 둘째 날은 럭비, 축구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종합전적 3승(농구, 럭비, 축구) 1무(빙구) 1패(야구)로 고려대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김병철 총장은 첫째 날 개막식 격려사를 통해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명승부를 통해 양교의 영원한 친선과 무궁한 발전을 이어가는 정기전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둘째 날 종합우승이 확정된 후 본교 본관 앞에서 해단식을 갖고 “5개 부 선수단, 응원단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다.”며 경기장과 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학술세미나 개최



박희종 관동대 총장은 2011년 10월 12일 ‘우리에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관동대학교는 동계올림픽 관련 연구와 자문 활동을 위해 지난해 6월 동계올림픽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발족한 데 이어, 이번 학술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동계올림픽 초기 체계적인 올림픽 준비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정책 조율과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동계올림픽 준비 로드맵을 만드는 토대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박희종 총장은 2011년 10월 24일 러시아 이루츠크크 대학 주관으로 개최된 「제7회 동야경제문화포럼」에 참석하고, 벨라루스 민스크국립언어대학교에 방문하여 양교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1월 25일에는 「제36차 한국지역대학연합회의」에 참석하고, 12월 13일에는 「관동대학교 교직원합창단 2011 송년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단장 선임

장호성 단국대 총장은 2011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심천에서 열린 2011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대한민국 선수단장으로 선임되어 선수단을 이끌었다.

이번 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70개국 13,0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대한민국은 선수, 경기임원, 본부임원 등 307명을 파견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 이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어 세계 3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편, 장호성 총장은 2011년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AUSF(Asia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AUSF는 아시아 대학들이 스포츠 교류를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장호성 총장은 지난 2010년에 AUSF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다.

명지대 제9대 총장 연임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2012년 1월 3일 오



전 11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명지대학교 신년 및 제9대 총장 취임예배」에 참석하였다.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유병진 총장은 취임사에서 신년인사 및 총장 재선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4년간 모든 역량을 다 쏟아 책임과 소명을 완수하고 명지대학교를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병진 총장은 4년간 '중점 추진 학교운영 기본 방향'으로 ▲2008년 수립한 Vision 2015 중장기발전계획의 완성과 저비용 고효율의 대학 경영 및 재정확충 ▲인문캠퍼스 부지개발과 자연캠퍼스 마스터플랜 완수를 통한 명품 캠퍼스 환경의 구축 ▲교육 및 연구의 내실화 추구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환경 조성예의 지원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학내분위기 조성의 네 가지를 들어 노력을 다짐했다.

한편, 유병진 총장은 2011년 11월 29일 벨지움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대학스포츠포럼(International University Sports Federation) 집행위원회에서 국제조정위원(International Control Committee)으로 재선임되었으며 임기는 4년이다.

상명대 제9대 총장으로 취임



강태범 상명대 총장은 2011년 9월 21일, 상명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9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태범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75년의 유구한 역사와 '진리, 정의, 사랑'의 교육이념에 근거하여 ▲특화된 교육 실시 ▲연구 환경과 교육환경 개선 ▲대학의 국제화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행정업무 시스템화 및 교수 학생 중심의 서비스 행정 구현 ▲이미지 개발 및 홍보강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강태범 총장은 취임 직후 9월 28일, 은평구청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결, 10월 5일 Universiti Brunei Darussalam 교원협정 협정 체결, 11월 2일 세계건기본부와 교류협력 체결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KTX 장학금' 확대 실시

김재홍 서라벌대 총장은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KTX 장학금'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KTX 장학금'은 가계부담 상승과 고속철도 통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정기권의 50%를 지원해주던 기존의 장학제도로

2012년부터는 100%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홍 총장은 "대학 축제 행사 수익금을 장학 기부하는 등 장학제도의 확대와 학생 복지를 실현하고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역과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홍 총장은 동문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서라벌대는 동문회 정상화를 위해 ▲웹페이지 개편 ▲페이스북을 활용한 SNS 동문회 ▲명품 동문 주소록 정비 ▲매년 2회 소식지 발송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 기획에 심혈을 기울여 동문과 재학생 간의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승기 전달식



안재환 아주대 총장은 2011년 9월 6일 제 12회 전국대학축구대회 우승기 및 우승컵 전달식을 개최했다.

아주대는 앞선 8월 31일 전남 영광스타디움에서 열린 전국대학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하석주 감독 부임 후 첫 우승이자 11년 만의 우승의 쾌거를 이룬 바 있다.

한편, 2011년 8월 사회통합위원회 경기지역 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는 안재환 총장은 11월에는 제16회 인터내셔널데이에 참석,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졸업 30주년 동문 학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 행사인 81학번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 대학들과 교류협력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2012년 1월 2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2012년 교직원 새해인사」에 참석, 인사 말을 했다.

이날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연세의 이름이 세계의 양심과 신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중 총장은 2012년 1월 10일 저녁 6시 30분에는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2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에 참석,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삼구 동문회장, 정갑영 차기 총장, 이만섭 전 국회의장, 한승수 전 국무총리 등 1,00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허동수 GS 칼텍스 회장, 이종덕 총무아트홀 사장이 자랑스러운 연세인상을 받았다.

한편, 김한중 총장은 2011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북경 화

북전력대학교 교류협력에 관해 논하고 산동대학 창립 110주년 기념 Int'l University Presidents Forum에 참석하여 Higher Education Beyond Borders: Pioneering a "New Da Vinci Code"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고,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 대학들과 교류협력을 다지고 돌아왔다.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격려



이호수 영남대 총장은 2011년 12월 19일 영남대학교 총장실에서 지난 8년간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한국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로 복귀한 이승엽 선수의 귀국 인사를 받고 격려했다. 이승엽 선수는 2005년 영남대 스포츠과학대학원 스포츠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석사 4학기 재학 중이다.

이호수 총장은 이승엽 선수의 국내 복귀를 환영하면서 2012 프로야구 시즌에서의 대 활약을 기대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사랑의 연탄배달부 변신



중앙대학교 안국신 총장이 일일 연탄배달부로 변신했다. 중앙대학교는 교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출범한 '청룡사회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 소외된 계층의 월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흑석동과 상도동 일대 저소득층 22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300장씩 총 6,600장의 연탄을 지급하며 안국신 총장, 학군단장, 청룡사회봉사단장, 자원봉사학생 등 중앙대 인력 149명이 참여하였다.

중앙대 관계자는 "중앙대가 명문사학으로서 사회로부터 받은 기대와 관심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환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학교 청룡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열정과 봉사 의식이 강한 학생 121명을 선발하여 발족되었다.

이번 연탄나눔 행사 외에도 겨울방학 기간 경남 산청의 한센병 환자 요양기관인 '성심원'에서의 봉사활동과 인도네시아 해외봉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외 외부단체와의 연계봉사, 봉사동아리 육성 및 재능기부, 교육나눔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군사학교와 교류협약 체결



김윤배 청주대 총장은 2011년 11월 25일 오후 2시 학생군사학교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학생군사학교 조병오 교장과 지역사회발전과 군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학생군사학교는 청주대 군사학과와의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입학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청주대 대



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동정

학원과 평생교육원에 추천하여 원활히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청주대학교는 학생군사학교의 추천에 의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부 강좌는 군의 특수장정을 고려하여 교수들이 영내에 출장하여 강의하기로 했다.

한편, 9월 27일 열린 청주대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김윤배 총장이 청석장학에 선정된 공예디자인 전공 4학년 김미영 씨에게 증서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윤배 총장은 8월 19일 대학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주대학교 201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학사 493명, 석사 116명, 박사 10명에게 각각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워싱턴서 '세계한양인의 만남'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2011년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2011 세계한양인의 만남」 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였다.

임덕호 총장은 '한양인의 미래를 위한 발전 포럼'에서 '뉴한양 2020' 프로젝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한양의 미래를 위한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임덕호 총장은 10월 8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앞 광장 및 올림픽체육관에서 81학번 동문들의 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2011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9일에는 수시 1차 최종 합격 예비 한양인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한양 슈즈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제49회 대한민국체육상 공로상 수상

김종욱 한국체대 총장은 2011년 10월 14일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올해 49회를 맞는 대한민국체육상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7개 분야로 나누어 시상하는 체육부문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상이다.

김종욱 총장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승훈, 모태범, 이상화 등 체육인재를 육성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또한, 상금 1,000만 원 전액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

'IT 스퀘어' 개관식



서강석 호남대 총장은 2011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IT 스퀘어'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U-Eco의 꿈을 실현시켜 빛고을 광주를 저탄소 녹색 성장형 최첨단 IT교육·산업 도시로 탈바꿈시키게 될 세계 최고 수준의 'IT 스퀘어'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최고의 국가 경쟁력으로 꼽히는 과학기술인재 육성과 IT기반 첨단산업 육성은 물론, 국가 미래산업인 Green 신산업의 발전 동력이자, 교육·산업·문화·관광 등이 복합된 서남권의 대표

적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T 스퀘어'는 총 연면적 7,807㎡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215억 원(국비 124억 원, 지방비·민자 91억 원)이 투입되었다.

'2011아시아프' 홍익대에서 개막



장영태 홍익대 총장은 2011년 7월 27일 오전 11시, 조선일보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주최하고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젊은 미술인들의 축제, 「2011 아시아프(ASYAAF; Asian Students and Young Artists Are Festival) 개막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장영태 총장은 환영사에서 "아시아프가 국민으로 하여금 미술 세계에 접근하는 통로를 넓게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취미를 다양화하고 젊은 미술학도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움으로써 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으며 홍익대학교에서의 개최가 큰 성공을 거두어 이를 계기로 아시아프가 한 단계 더 높이 비상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장영태 총장은 12월 21일 홍익대학교 와우관에서 개최된 「2011 동계해외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솔 단장과 부단장, 학생 153명 등 동계해외봉사단을 격려했다.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Korea University Sport Federation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1004호
전화: 02-707-3767 팩스: 02-707-3766
www.kusf.or.kr